

2019년 1월 17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금융주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연준 “대부분의 지역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기업실적 발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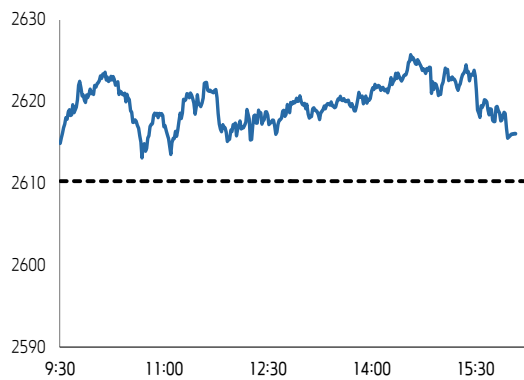
미 증시는 3 대지수가 12 월말 저점 대비 10% 내외 상승한 여파로 차익매물이 출회. 그러나 양호한 실적, 미-중 무역분쟁 낙관론, 금리인상 속도 지연,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상승(다우 +0.59%, 나스닥 +0.15%, S&P500 +0.22%, 러셀 2000 +0.66%)

골드만삭스(+9.54%)와 BOA(+7.16%)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특히 과거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지출 감소에 따른 수익 개선이 아니라,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이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골드만삭스는 자문 업무에서 강력한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 BOA 의 경우 대출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이 긍정적. 지난해 4 분기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감 등이 높아지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지문업무 부문 강한 실적 개선은 투자자들이 이를 기회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의미.

더불어 BOA 는 개인과 기업대출 증가를 통한 수익 개선이 이어졌다고 발표. 과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될 경우 미국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줄였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었음. 그러나 BOA 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던 4 분기에 미국은행들은 대출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음. 시장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장단기금리차에 축소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완화로 해석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대부분 지역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한편 대부분의 제조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자동차,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둔화 되고 있다고 언급. 다만 많은 지역이 금리 상승과 에너지 가격 하락, 무역 및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주장. 더불어 관세 발효 등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비용을 고객에 전가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 하지만 섀도우, 미-중 무역분쟁 등은 기업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06.10	+0.43	홍콩항셱	26,902.10	+0.27
KOSDAQ	693.38	+0.43	영국	6,862.68	-0.47
DOW	24,207.16	+0.59	독일	10,931.24	+0.36
NASDAQ	7,034.69	+0.15	프랑스	4,810.74	+0.51
S&P 500	2,616.10	+0.22	스페인	8,912.70	+0.71
상하이종합	2,570.42	+0.00	그리스	622.76	-0.00
일본	20,442.75	-0.55	이탈리아	19,477.77	+1.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강세

골드만삭스(+9.54%), BOA(+7.16%), 블랙록(+3.08%), US방코프(+2.38%)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다. JP모건(+0.81%), 씨티그룹(+1.32%), 모건스탠리(+3.75%)는 물론 찰스스왑(+5.54%), 이트레이드(+3.22%) 등 증권사, 스테이트 스트리트(+2.64%), T.Rowe(+2.72%) 등 자산 운용사, 키코프(+2.70%), HBAN(+3.03%) 등 중소형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주가 상승했다.

한편, 애플(+1.22%)은 애플TV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상승했다. MS(+0.35%)는 월그린 부츠(+0.29%)와 의료서비스 제공 솔루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MS는 AI, AR/VR 등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나이티드 항공(+6.35%)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2.31%)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노드스트롬(-4.76%)은 11월과 12월 저가 의류 판매가 둔화돼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포드(-6.22%)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컨퍼런스에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6%	대형 가치주 ETF	+0.63%
에너지섹터 ETF	-0.43%	중형 가치주 ETF	+0.60%
소매업체 ETF	+0.23%	소형 가치주 ETF	+0.90%
금융섹터 ETF	+2.13%	배당주 ETF	0.00%
기술섹터 ETF	+0.09%	변동성 ETF	+0.75%
소셜 미디어업체 ETF	+0.71%	대형 성장주 ETF	+0.09%
인터넷업체 ETF	-0.12%	중형 성장주 ETF	+0.17%
리츠업체 ETF	+0.47%	소형 성장주 ETF	+0.38%
주택건설업체 ETF	-1.00%	신흥국 고배당 ETF	+0.96%
바이오섹터 ETF	-0.5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1%
헬스케어 ETF	-0.18%	하이일드 ETF	+0.20%
곡물 ETF	+0.12%	물가연동채 ETF	-0.01%
반도체 ETF	-0.79%	Long/short ETF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8.10	-0.15%	-0.34%	+2.38%
소재	324.14	+0.41%	-0.55%	+3.27%
산업재	569.99	+0.12%	+1.09%	+3.36%
경기소비재	830.72	-0.16%	+0.02%	+5.84%
필수소비재	529.85	-0.54%	+0.84%	-2.40%
헬스케어	1,021.42	-0.15%	+0.98%	+1.63%
금융	422.09	+2.20%	+4.08%	+6.37%
IT	1,122.20	+0.05%	+0.92%	+1.62%
커뮤니케이션	148.42	-0.40%	+0.98%	+4.76%
유틸리티	268.30	+0.27%	+0.24%	-3.12%
부동산	201.02	+0.55%	+3.12%	+1.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차익 욕구 강화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8% MSCI 신흥지수 ETF 도 1.23% 상승 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72 계약)에 힘입어 1.10pt 상승한 273.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9.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금융주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대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경기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연준 또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등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 섀도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대출업무가 중단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을 높일 수 있다. 여전히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시적 위험이기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유지 했으나, 정치 불확실성과 투입비용 증가등을 이유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나 차익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지표 하락

12 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0% 하락 했다. 전년 대비로도 0.6% 하락하는 등 물가 하락이 이어졌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6% 하락 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1% 증가했다.

1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56)이나 예상치(57)을 상회한 58 로 발표되었다. 최근 모기지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심리적인 개선이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엔화 약세, 국채금리 상승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유지

국제유가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고 EIA 의 원유재고가 예상치(-132 만 배럴)보다 큰 268 만 배럴 감소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정제유(+297 만 배럴)와 가솔린(+750 만 배럴)이 크게 증가해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이후 변화가 제한 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파운드화는 메이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섰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메이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매파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연준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해 상승을 제한한 점도 특징이다.

금은 섰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0% 하락 했으나, 철근은 0.8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31	+0.38	-0.10	Dollar Index	96.077	+0.04	+0.90
브렌트유	61.32	+1.12	-0.20	EUR/USD	1.1394	-0.17	-1.29
금	1,293.80	+0.42	+0.14	USD/JPY	109.05	+0.34	+0.81
은	15.638	+0.12	-0.62	GBP/USD	1.2877	+0.12	+0.69
알루미늄	1,859.00	+0.76	+0.35	USD/CHF	0.9903	+0.25	+1.63
전기동	5,970.00	+0.84	+0.20	AUD/USD	0.7172	-0.40	+0.03
아연	2,496.50	+1.65	+0.18	USD/CAD	1.3258	-0.06	+0.37
옥수수	374.00	+0.74	-2.09	USD/BRL	3.7364	+0.41	+1.51
밀	512.50	+0.29	-1.44	USD/CNH	6.7634	-0.15	-0.72
대두	894.50	+0.14	-3.19	USD/KRW	1120.10	-0.05	-0.18
커피	102.40	+1.09	-2.75	USD/KRW NDF1M	1119.50	-0.16	+0.1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25	+1.42	+1.54	스페인	1.373	-1.40	-11.60
한국	1.975	+1.30	-0.30	포르투갈	1.785	+12.90	+1.50
일본	0.010	-0.30	-2.20	그리스	4.220	-3.20	-6.60
독일	0.224	+1.80	-5.50	이탈리아	2.753	-11.90	-12.30